

## 대통령취임식에 등장한 1937년식 포드 자동차



지난 1일 취임한 루이스라카에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이 증조부의 애마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여 화제이다.

포우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린 이날 우루과이 의회당에서 취임식이 열린 독립광장까지 포드 V8을 타고 이동했다. 1937년식인 이 자동차의 나이는 정확히 83년. 박물관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했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된 자동차라 혹시라도 퍼레이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우루과이 정부는 예비차량을 대기시켰다. 하지만 포드 V8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취임식장까지 안전하게 신임 대통령을 태워 날랐다.

포우 대통령이 취임식 때 1937년식 포드 V8을 타겠다고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차는 포우 대통령의 증조부가 구입해 직접 몰았던 승용차다. 포우 대통령의 증조부는 우루과이 유력 정치인이던 루이스 알베르토 데에레라로 그는 1930년대 이 차를 구입했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영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로 짐작된다. 데에레라는 1955~1959년 연정에 참여하는 등 당시 우루과이의 유력 정치인으로 여러 번 대권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대통령의 꿈을 이룬 건 그의 손자이자 포우 대통령의 부친인 루이스 알베르토 라카에였다. 1990~1995년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1990년 3월1일 열린 취임식 때 할아버지의 자가용이던 1937년식 포드 V8을 탔다. 포우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아버지처럼 증조부의 차를 취임식 때 타겠다고 했다. 유력 정치인의 자가용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손자와 증손자를 취임식 때 사용되는 진기록을 남긴 것이다.

우루과이에선 포우 대통령이 1937년식 포드 V8을 행사차량으로 선택한 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선포했다는 것이다. 역사교수이자 정치평론가 모니카 마론나는 “포우 대통령이 전통을 승계하겠다는 보수적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포우 대통령은 중도 우파 정치인으로 법조인 출신이다.

## 휠체어 타고 나 홀로 세계 여행 나선 여성

휠체어를 타고 혼자 세계를 여행하는 페루 여성이 주목받고 있다.

페루 이카에서 태어난 마르셀라 마라논(38·사진)은 18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하지만 그는 유학 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며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한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향했지만 마음을 수습한 그는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고 대학에 복귀한 그는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를 받고 결혼까지 했다. 2번의 직장생활 끝에 의류업체를 창업, 삶의 안정을 찾은 그는 2017년부터 ‘혼자 떠나는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방문한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홍콩, 인도,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탄자니아, 요르단 등 모두 14개 국가. 미국과 모국인 페루를 포함하면 그가 경험한 국가는 16개국에 이른다.

혼자 떠나는 그의 세계 여행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마라논은 “보다 강한 사람, 장애가 있지만 스스로 무엇이든 해결하는 내가 되기 위해 혼자 여행을 한다.”고 말했다.



다. 이런 목표를 갖고 떠난 여행 중 가장 힘든 여행으로 그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등정을 꼽는다. 휠체어를 탄 몸으로는 혼자서 정상에 오를 수 없어 포터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마라논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정상까지 꼬박 6일이 걸렸다.”면서 “결국 정상을 밟았지만 힘과 자신감, 체력 등 모든 걸 시험대에 올려놓은 듯한 여행이었다.”고 회상했다.

그에겐 세계여행을 하면서 갖게 된 꿈이 있다. 새로운 세계 신 7대 불가사의를 모두 방문하는 꿈이다. 마라논은 이미 멕시코의 차첸 이라 피라미드,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인도의 타지마할 등 4곳을 방문했다. 남은 건 중국 만리장성, 브라질의 예수상,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등 3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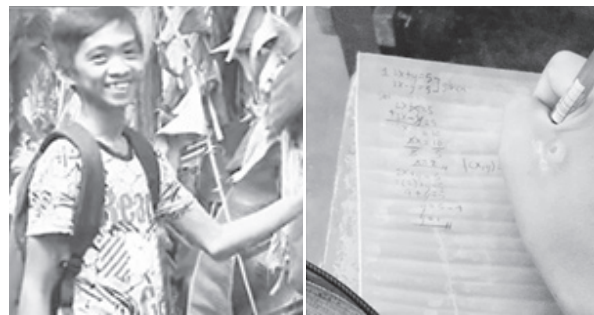
세계여행을 하면서 마라논은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는 “여행을 하면 할수록 작은 것, 심플한 것에 소중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도 여행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 ‘바나나 잎’에 필기하는 소년

공책 살 돈이 없어서 바나나 잎사귀에 필기하는 필리핀 소년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온라인 뉴스매체 월드오브버즈에 따르면 필리핀의 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소년 몬터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필기도구조차 마련할 수 없는 극빈 가정의 자녀이다. 그렇지만 그는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사연은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에 감동한 담임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연을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내용을 공책에 적으라고 말한 뒤 학생들의 공책을 검사했다. 그



때 몬터가 공책이 아닌 바나나 잎사귀 위에 노트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의아해하는 교사에게 몬터는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며 “필기를 잘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몬터의 바나나 공책 위에는 문제 풀이 과정

뿐 아니라 귀여운 낙서도 그려져 있었다.

공책 살 돈이 없자, 그는 바나나 잎사귀들을 한데 모아 노트 크기로 오려 공책을 만들어 활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내용을 바나나 잎 위에 꼼꼼하게 적어 두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며 꿈을 향해 나가는 몬터의 모습에 수 많은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